
로지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 포스트휴먼 주체와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을 향하여*

이경란 (이화여자대학교)

I. 포스트휴먼: ‘인간 이후의 인간?’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2019년 봄에 출간한 책 『포스트휴먼 지식(*Posthuman Knowledge*)』에서 최근 웹사이트 사용자들이 일상에서 접속자가 인간임을 증명하라는 혹은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심심치 않게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포스트휴먼 지식과 포스트휴먼 주체에 관한 자신의 글을 시작한다. 실제로 구글(Google)에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나는 로봇이 아니다(I’m not a robot)”라는 문구에 체크 하라는 요구를 드물지 않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질문들이 올라와 있다. “왜 어떤 웹사이트들은 내가 로봇인지 묻는 것입니까?,” “당신은 인간이다/나는 로봇이 아니다를 증명하라는 링크는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는 것입니까?,” “나는 로봇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나오지 않게 할 수는 없나요?” 같은 많은 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대답과 설명은 물론 웹사이트 보안에 관련된 기술적 이유를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69796)

1. “Why do some websites ask me if I am a robot?,” “How does ‘prove you are human/I am not a robot’ links verify? What does they verify?,” “Can I do something to stop getting ‘I am not a robot?’” Quora, “Why do websites need to verify that you're not a robot?” <https://www.quora.com/Why-do-websites-need-to-verify-that-youre-not-a-robot>. Accessed 2019.10.01.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이 인간임을 증명하려는 요구를 받는 우리의 디지털 세상은 기술적 이유를 넘어서서 “오늘날 누가 아니 무엇이 인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Braidotti 2019, 1)라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다.

인간의 정의와 경계에 대해, 인간과 기술적 비인간들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는 주요 담론 중 하나는 ‘포스트휴먼’ 담론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낯설게 느껴졌던 ‘포스트휴먼’이라는 말과 그와 관련된 담론과 논의들인 ‘포스트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 ‘메타휴머니티,’ ‘휴머니티+’ 등의 용어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폭발적 논의들과 더불어 여러 학문 영역에서 낯설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흔히 포스트휴먼을 논의하던 고전적인 영역인 인공지능, 사이버보, 로봇공학, 생명공학, 자율주행차, 로봇틱스, 스마트도시, SF 문학, 바이오아트 등에 관한 철학적, 윤리적, 사회적, 기술적 논의를 넘어서서 이제는 ‘포스트휴먼 신학’(장윤재 2017), ‘포스트휴먼 교육’(박유신 2017), ‘인문치료특강: 포스트휴먼과 내러티브’(강원대인문과학연구소 2017) 같은 일견 그 내용이 궁극한 제목들이 보여주듯 포스트휴먼 관련 논의와 실천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일상화되는 현상도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영역에서 사용되는 ‘포스트휴먼’이라는 용어는 사실 그 의미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투명한 용어는 아니다. 같은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담론들과 맥락이 오해를 야기하기도 하고, ‘포스트휴먼’이라는 용어 자체의 자기모순성이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포스트휴먼’을 우리말로 번역하고자 하면, ‘인간 이후의 인간’ 혹은 ‘탈인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인간’ 이후의 ‘인간’ 혹은 ‘인간’을 벗어난 ‘인간’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혹 가능하다면 어떤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어떤 형상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 앞의 ‘인간’과 뒤의 ‘인간’은 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다른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미 ‘postcolonial’ 혹은 ‘postmodern’ 같은 수입된 용어들을 번역하면서 ‘post’를 시간적 진행을 나타내는 ‘이후’로 번역할 것인지 아니면 벗어남을 나타내는 ‘탈’로 번역할

것이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탈’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고 간주되는 외래어 ‘포스트’라는 용어를 번역하지 않고 혹은 번역하기를 포기하고 그대로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격렬한 논의를 벌인 역사가 있다. 하지만 ‘posthuman’이라는 말은 기존의 ‘postcolonial’이나 ‘postmodern’과는 아주 다른 차원의 번역적 곤경을 야기한다. ‘인간 이후의 인간’ 혹은 ‘탈인간’이라니, 시간적 ‘이후’이든 벗어남을 의미하는 ‘탈’이든 어떻게 인간을 벗어난 인간, 인간 이후의 인간이라는 자가당착적이고 모순된 상태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만약 이런 모순된 용어가 사용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또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많은 의문들을 순식간에 떠오르게 하는 ‘포스트휴먼’이라는 용어는 로지 브라이도티가 『포스트휴먼(*The Posthuman*)』(2013)에서 ‘포스트휴먼 조건’ 혹은 ‘포스트휴먼 곤경’이라고 불렀던 우리 시대의 복잡한 역사적 조건에서 나온 것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조건의 복잡성을 표상하고 있다. 포스트휴먼 조건의 복잡성 중 하나는 주요 포스트휴먼 연구서들이 사용하는 시제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999년에 캐서린 헤일스(Katherine Hayles)가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How We Became Posthuman*)』라는 선도적인 책에서 도발적인 과거형의 질문으로 ‘포스트휴먼’ 개념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면, 2017년의 이종관은 『포스트휴먼이 온다』는 미래형의 제목으로 인공지능, 인공생명, 디지털 경제가 열어갈 인간의 미래를 철학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똑같은 2017년에 나온 건국대박물관연구소의 『지구에는 포스트휴먼이 산다』는 현재형의 제목을 사용해서 독자들이 하여금 현재 지구에서 살고 있다는 포스트휴먼을 찾아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호기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다양한 시제로 다루어짐으로써 사람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다양한 ‘포스트휴먼’ 논의들 중에서 2013년에 출간된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은 기존에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포스트휴먼 담론들을 폭넓게 다루면서도 저자 나름의 뚜렷한 관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서, 독자들이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역사적, 기술적, 사회적 조건과 그 조건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담론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독자 개개인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있는 수많은 사회적, 자연적, 기술적 타자들의 삶에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을 가지도록 촉구한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있는 작업이다.

로지 브라이도티는 1994년에 출판된 『유목적 주체: 우리 시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체현과 성차의 문제(Nomadic Subjects: Embodiment and Sexual Difference in Contemporary Feminist Theory)』로 잘 알려진 유럽의 여성 철학자이자 페미니즘 실천 운동가다. 그녀는 유럽의 안과 밖에서 비주류로 성장했던 자신의 경험이 유럽이 결코 단일한 실체가 아니며 개인의 주체 위치도 결코 단일하지 않음을 알게 하였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Butler & Braidotti, 1994, 28). 유럽의 실천적 페미니스트로서 복잡한 세계를 단순화시키지 않고 이항대립적이지도 않고 공격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타자들과 제휴하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가 바로 그녀의 “유목적 주체(nomadic subjects)” 전망이었다. 이후 출간된 연구서들인 『메타모포시스: 되기의 유물론적 이론(Metamorphoses. Towards a Materialist Theory of Becoming)』(2002)과 『트랜스포지션: 유목적 윤리(Transpositions: On Nomadic Ethics)』(2006)에서 브라이도티는 한편으로는 차이의 문제를 젠더 차이만이 아니라 자아와 타자, 유럽과 외국인, 인간과 비인간 등 다양한 이분법적 구분의 문제로 확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처받고 박탈당하는 과정에서 겪기 마련인 체념과 수동성을 넘어 나아가는 유목적 윤리를 강조하면서 변화와 변혁에 관한 정치적 열정을 윤리에 연결시킨다. 브라이도티의 타자에 대한 깊은 관심은 21세기의 포스트휴먼 조건과 포스트휴먼 주체를 논하는 그녀의 『포스트휴먼』(2013)에서도 변함없이 핵심적 가치로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가 기존의 민족적, 종교적, 인종적, 계급적, 젠더적, 지정학적, 자연적 타자들에 더하여, 유전공학, 인공지능, 정보기술 같은 첨단 기술과학의 발달로 새로운 타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기술로 매개된 타자들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개념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인간’ 개념을 모색하도록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체와 타자에 대한 페미니스트 브라이도티의 섬세한 역사적 통찰이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적으로 매개된 타자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포스트휴먼 주체 전망과 비판적 포스트휴먼 이론을 발전시키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의 4번째 장인 「포스트휴먼 인문학(Posthuman Humanities)」에서 21세기의 인문학에 필요한 “포스트휴먼 비판 이론(Posthuman Critical Theory)”의 주된 방법론과 기준을 논하는데, 이는 곧 포스트휴먼 조건을 연구하는 자신의 포스트휴먼 비판 이론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그 중 하나는 현 세계가 어떤 면에서 포스트휴먼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에 대응하고 반응하는 연구와 담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해하고자 하는 정확한 지도그리기(cartography) 방식이다. 그녀에게 지도그리기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정치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현재를 읽어내는 독법(a theoretically based and politically informed reading of the present)”(164)이며, 그러한 지도그리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주체-포지션을 구조화하는 권력 위치들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벗겨냄으로써 인식론적이고 윤리적인 설명책임”(epistemic and ethical accountability by unveiling the power locations which structure our subject-position)”(164)을 다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브라이도티가 자신의 포스트휴먼 이론으로 하고 싶은 작업은 단순히 권력 관계에 대한 이해와 비판만은 아니다. 그녀는 또한 포스트휴먼 이론을 인간의 참조 단위를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 인간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탐색하는 “항해 도구”(navigational tool)(5)로도 사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인간 개념을 와해시킬 정도로 고도로 발전된 새로운 기술과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의 이윤지향적 역학이 연합하고 기존의 오래된 타자들에 새로운 기술적 타자들이 부가되는 격렬한 포스트휴먼 바다에서 브라이도티는 단순히 현상을 설명하고 기술하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향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그의 포스트휴먼 주체 개념이다. 그래서 그녀의 권력에 대한 비판은 권력 위치에 대한 대안적 형상화(figuration) 즉 개념적 페르소나(*conceptual personae*)의 추구와 나란히 이루어진다. 그녀의 ‘포스트휴먼 주체’는 이전의 ‘유목적 주체’가 그러했듯이, 그리고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의 사이보그(cyborg), 앙코마우스(Oncomouse), 동반종(*companion species*) 개념이 그러하듯이, 현실이면서 동시에 메타포이고, 지도그리기이면서 동시에 형상화이다. “현실과 사유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자체가 개념들을 생산하는 운동을 일으키는”(이찬웅, 110) 역동적인 개념적 페르소나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재 우리의 포스트휴먼 조건에서 ‘인간’이 무엇인지, 포스트휴먼 주체는 어떤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한 사유의 생산과 순환의 역동적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는 포스트휴먼 개념들을 살펴보고, 스스로를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스트라고 규정하는 로지 브라이도티가 포스트휴먼 조건과 포스트휴먼 주체 개념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먼 지식』 두 책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당신은 로봇인지 아닌지를 묻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나는 로봇이 아니다, 하지만 나의 어떤 친구들은 그러하다! 나는 포스트휴먼이다—너무나 인간적인(No, I am not a robot, but some of my friends are! I am posthuman—all too human).”(Braidotti 2019, 5)이라고 답하는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 논의가, 나의 얼굴과 목소리를 친구처럼 알아보고 나만의 디지털 세계를 열어주는 사물인터넷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땅과 바다와 하늘 생물들의 먹이 사슬에 우리가 만든 플라스틱이 피할 수 없이 순환되는 지구생태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인간인지,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포스트-휴먼, 포스트-휴머니즘, 포스트-인간중심주의

인간 이후의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포스트휴먼(Posthuman)”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로 활동했던 아랍계 미국인 이هاب 핫산(Ihab Hassan)(1925-2015)이다. 핫산은 『근본적 순수: 현대 미국 소설 연구(*Radical Innocence: Studies in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1961)를 시작으로 『포스트모던 선회: 포스트모던 이론과 문화(*The Postmodern Turn: Essays in Postmodern Theory and Culture*)』(1987)를 비롯해서 많은 포스트모던 문학 이론서를 통해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구별짓는 작업을 한 문학 이론가이다. 20세기 중반에 휴머니즘과 인간중심주의 시각에 간혀있던 근대성을 반성하고 해체하려던 포스트모더니스트 핫산이 그 과정에서 포스트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티 개념까지 개진했다는 사실은 모더니티에 대한 반성이 휴머니즘과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반성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수행자 프로메테우스: 포스트휴머니스트 문화를 향하여?」(“Prometheus as performer: Towards a Posthumanist Culture?”)(1977)에서 핫산은 당대의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형상과 인간의 개념을 변형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그가 말하는 인간의 형상은 인간의 육명과 인간에 대한 모든 재현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며, 포스트휴머니즘의 핵심은 과학과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과 상상력의 상호작용으로 파악된다. 기술에 의한 인간 형태의 변화가 휴머니즘을 불가피하게 포스트-휴머니즘으로 변형시킬 것이라는 핫산의 예언은 이러한 통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이후 슈테판 헤어브레히터(Stefan Herbrechter), 캐서린 헤일스, 로지 브라이도티 등 스스로를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스트라고 말하는 포스트휴머니즘 이론가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통찰이기도 하다.

하지만 ‘포스트휴먼’을 말하는 모든 사람이 포스트휴먼의 출현을 포스트-휴머니즘이나 포스트-인간(중)중심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다. 현대의

놀라운 첨단 과학기술에 의한 소위 ‘인간 향상(enhancement)’ 과정이 기하학적 속도로 진행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간의 능력과 기능을 향상시킨 문자 그대로의 ‘인간-이후’ 존재자, 즉 생물학적 몸을 가진 인간을 넘어서 ‘포스트-휴먼’이 출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포스트휴먼 전망에는 ‘대문자 인간’(Man)을 중심으로 인간 개념을 형성했던 근대 휴머니즘을 넘어서는 포스트-휴머니즘적 전망이 나타나지 않는다. 발전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이 형상과 기능만이 아니라 물질적 존재 기반까지 선택 가능한 자유로운 상태를 기대하고 또 열망하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이념은 인간의 이성과 기술의 발전을 진보라고 확신하는 근대 계몽주의 이념의 극단적 형태이다. 인간을 물리적으로 조작하여 고성능의 인간으로 개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개조 작업이 바람직하고 또 진화론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믿는 소위 트랜스휴머니스트들, 인간의 마음을 다른 물리적 기반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케서린 헤일스가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에서 웅변적으로 증명하듯이, 몸과 정신이 분리될 수 있다고 믿는 근대 휴머니즘의 데카르트적 이분법적 사고의 충실한 상속자이다. 기술과학에 의해 인간의 가능성이 무한히 확장될 미래의 가능성에 집중하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전망에 여성, 식민지인, 비백인만이 아니라 자연과 지구까지 대상화하고 타자화했던 근대 서양 역사의 백인/남성-중심주의나 인간중-중심주의에 대한 반성도, 미래 ‘포스트-휴먼’들이 대면할 수도 있을 사회적, 철학적,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성찰도 깊게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스스로를 트랜스휴머니스트라고 선언하거나 의식하지 않는 수많은 과학자들, 세계 각국의 실험실과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며 인간의 생물학적 약점을 보강하고 기능을 향상 시킬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상품화하면서 환희와 보람을 느끼는 수많은 과학과 기술 연구자, 의학자, 사업가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지향하는 “포스트-휴먼”의 현실화, 인간의 “포스트휴먼화”에 알게 모르게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현재의 포스트휴먼 조건의 다양한 양상을 폭넓게 성찰하면서 현대 기술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형상과 인간 개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변화된 미래 인간에 우리는 어떤 전망과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질문하여 그 위기와 기회를 통찰하는 로지 브라이도티의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논의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교란시키는 사이보그를 논의의 전면에 내세웠던 도나 해러웨이나 ‘우리는 이미 포스트휴먼이 되었다’고 암시하는 충격적 제목으로 포스트휴먼 개념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캐서린 헤일스와 달리,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에서 “우리가 늘 인간이었다고 혹은 우리가 단지 인간이기만 했다고 모두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1)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성찰하는 말로 자신의 포스트휴먼 연구의 서론을 시작한다. “데카르트의 코기토 주체, 칸트의 이성적 존재들의 공동체, 시민, 권리보유자, 재산소유자로서의 주체”(1)라는 말들이 기존에 서양에서 ‘인간’을 정의했다면, 그러한 ‘인간’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동시에 그녀는 20세기 중반 이후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인종이론, 해체주의 등이 이러한 서양/남성/백인/건강/이성애/이성 중심의 인간 개념을 지속적으로 붕괴시키고 해체시켜 왔던 역사적 흐름도 강조한다. 포스트휴먼 조건에 대한 브라이도티의 연구가 다른 무엇보다 근대 유럽 휴머니즘에서 개진되었던 인간 개념에 대한 근본적이고 역사적인 검토를 통해 출발한다는 사실은 21세기 우리 시대가 근대 휴머니즘적 인간관으로는 해명될 수 없는 조건이며 그래서 포스트-휴머니즘적 인간 개념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부각시킨다.

브라이도티가 규정하는 포스트휴먼 조건의 또 다른 축은 인간(종)을 만물의 척도로 간주하면서 인간과 비인간 타자들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인간(종)을 중심으로 만물의 위계를 설정해왔던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포스트-인간중심주의이다. 기술과학의 발전과 지구화된 시장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포스트-인간중심적 현상들이 물질과 생명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과학의 발전이 야기하는 포스트-휴먼, 포스트-인간중중심적 현상에 대한 반응은 첨단 기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그것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붙잡고 있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의 반응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사이보그 선언문: 20세기말의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주의적-페미니즘(A Cyborg Manifesto: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Feminism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1991)에서 여성들의 과학기술 접근성이 페미니즘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나는 여신보다는 차라리 사이보그가 되겠다”(181)고 선언했던 해러웨이드도 새로운 기술과학 세계의 조건이 여성에게 이롭기만 한 것이 아님을 다각도로 강조했다. 스스로 자신은 새로운 기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말하는 브라이도티도 기술과학에 의한 인간 향상의 무한한 가능성을 온전하게 믿고 환호하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과 달리 새로운 기술을 보수적 측면에 연동시키거나 개인주의를 조장하고 확대하는 이윤추구 체계에 연동시키는 실천에 분명한 반대를 표현한다. 기술의 해방적인 잠재력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살아있는 것을 상품화시키는 글로벌 시장경제와 인공지능 무기들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국가적 경쟁 체제 하에서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비인도적, 반생명적으로 실천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과학의 발전으로 자연(주어진 것)과 문화(구성된 것)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생명 물질을 “자연-문화 연속체”(the nature-culture continuum)(Braidotti 2013, 3)로 보는 일원론적 철학과 패러다임이 부각되고, 이러한 변화가 인간중중심주의적 주체를 넘어서는 주체 개념을 전망할 수 있는 혹은 전망해야 하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브라이도티는 인간의 생명만이 아닌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평등하게 보는 조에(zoe) 평등주의가 자동적으로 포스트-휴머니즘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 포스트휴먼 주체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바로 이러한 통찰이 브라이도티로 하여금 비판적 포스트휴먼 이론과 포스트휴먼 주체 전망을 발전시키는

주된 추동력이다.

III.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 주체: 대문자 인간("Man")을 너머 횡단적, 관계적 주체성으로

그렇다면 포스트-휴머니즘적이고 포스트-인간중중심주의적 포스트휴먼 조건은 '인간'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특히, 종적 위계를 부인하는 탈-인간중중심주의적 접근 방법은 우리 시대의 주체성과 주체 형성을 어떻게 이해하게 할 것이며, 어떤 새로운 주체성의 형식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붙잡고 현재와 미래의 포스트-휴머니즘적이고 포스트-인간중중심주의적 포스트휴먼 조건에 필요한 주체 모델을 실험하고 모색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브라이도티가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먼 지식』 두 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포스트휴먼 연구 작업의 핵심 중 하나이다.

사실 두 책의 목차가 드러내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보면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먼 지식』은 논의의 구조에서 차이를 보인다. 긴급한 어조로 현재의 포스트휴먼 조건과 곤경을 이해하고 그러한 조건들을 다루는 많은 당대의 연구들과 담론들의 지도를 그려내면서 다양한 포스트휴먼적 위기와 곤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지해야 할 긍정의 윤리와 실천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2013년의 『포스트휴먼』에서는 포스트휴먼 조건의 분석 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이었다. 그래서 전체 논의는 근대 휴머니즘의 문제점을 다루고 그것의 극복을 촉구하는 「포스트-휴머니즘: 자아 너머 생명(Post-Humanism: Life beyond the Self)」,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들의 경계를 재설정하라고 촉구하는 현재의 다양한 포스트휴먼 현상과 요청을 다루는 「포스트-인간중중심주의: 종 넘어 생명(Post-Anthropocentrism: Life beyond the Species)」, 포스트휴먼 조건의 비인간성/비인도성을 다루는 「비인간적인 것: 죽음 너머 생명(The Inhuman: Life beyond Death)」, 그리고 포스트휴먼 조건에 맞는 포스트휴먼 인문학을 촉구하는 「포스트휴먼

인문학: 이론 너머 생명(Posthuman Humanities: Life beyond Theory)」 이렇게 4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체 논의는 대문자 생명(Life)을 재개념화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2019년의 『포스트휴먼 지식』에서는 조금 더 차분한 어조로 앞 책에서 치밀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논했던 포스트휴먼 조건을 첫 장에 요약한 후 바로 「포스트휴먼 주체(Posthuman Subjects)」로 넘어가 포스트휴먼 주체를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는 이러한 포스트휴먼 주체 개념을 중심으로 「포스트휴먼 지식생산(Posthuman Knowledge Production)」, 「비판적 포스트인문학(The Critical PostHumanities)」, 「포스트휴먼적 사유(“How to do Posthuman Thinking)」, 「긍정적 윤리(On Affirmative Ethics)」 등의 장을 통해 포스트휴먼 지식과 포스트휴먼 주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렇게 두 책의 논의 구조를 드러내는 장들의 제목은 저자가 그 당시에 집중하려는 초점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포스트휴먼』에서 개진된 포스트휴먼 조건의 구체적인 논의들 속에는 이미 포스트휴먼 주체와 주체성에 대한 논의가 촘촘히 짜여 들어가 있다. 이는 브라이도티에게는 포스트휴먼 조건에 대한 논의가 포스트휴먼 주체 문제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주제임을 나타낸다.

『포스트휴먼 지식』의 「포스트휴먼 주체」 장에 분명하게 지적되어있듯이, 모든 포스트휴먼 연구자들이 브라이도티처럼 포스트휴먼 주체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브라이도티 자신도 “포스트휴먼 연구 작업을 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체성의 문제는 포스트휴먼 곤경과 불편하게 앉아있는”(41) 문제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주체성 문제를 전혀 논하지 않는 경향에도, 주체성을 약간만 변형시켜 휴머니즘의 전통에 재기입하려는 또 다른 반대극의 경향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브라이도티는 이 두 극단 사이의 중간 지대에서 주체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은 비휴머니즘이 아니다(Posthumanism Is Not Inhumanism)」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절에 잘 설명되어있듯이,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 주체 문제를 자신들의 포스트휴먼 이론 자체에서 삭제하고 있는 포스트휴먼 논의들을

크게 3유형으로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도 개진한다. 즉, 주체-객체의 이분법을 비판하면서 비인간 행위자들의 중요성과 지각능력을 인정한 부르노 라투르(Bruno Latour)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 Network Theory, ANT), 기술적 대상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형태의 행위성을 발전시키려는 “사변적 포스트휴머니즘(speculative posthumanism),” 그리고 인간세의 하이퍼-대상이나 인터넷-기반 스마트 대상처럼 인간과 완전히 독립적인 사고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진 대상들의 세계를 강조하는 “대상-중심 존재론자들(object-oriented ontologists)”이 브라이도티가 범주화한 포스트휴먼 주체 논의를 배제하는 포스트휴먼 논의들인데(55-61), 브라이도티는 비인간 대상들의 행위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포스트휴먼 논의들이 그 가능성과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포스트휴먼 이론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러한 담론들이 기후 변화를 야기할 정도로 거대한 기술적 전환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공포나 환희도, 동시대 주체들이 놓여있는 다중적 권력 구조도 다루지 않고, 선진 자본주의와 기술의 부정적인 연합이나 우리가 현재 어떤 주체가 되고 있는지의 문제도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에서 우리는 비인간 대상들의 행위성에 관심을 두는 포스트휴먼 논의도 사회적 정의와 윤리와 책임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는 페미니스트 이론가이며 실천가인 브라이도티를 본다. 이미 『포스트휴먼』에서도 브라이도티는, 기술과학의 발전과 일원론적 철학이 지지하는 물질의 스마트 구조와 물질의 지능성과 생기성을 인정한 후에, “이렇게 힘과 데이터의 흐름이 복잡한 장 안에서 주체성은 어떻게 되는가?(2013, 60)를 질문하면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지닌 포스트휴먼 조건에 윤리적 책임과 정치적 의식과 창조성을 지닌 주체 입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브라이도티가 전망하는 새로운 포스트휴먼 주체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힘과 데이터의 흐름이 복잡한 장 안에서 주체성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 모든 요소들의 축적된 효과에 의해 생성된, 확장된 관계적 자아(an expanded relational self, engendered by the cumulative

effect of all these factors)”(2013, 60)라고 답하면서 ‘관계성’을 강조했던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 지식』의 「포스트휴먼 주체」 장에서도 포스트휴먼 근경은 훨씬 더 다양한 관계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처럼 포스트휴먼 주체성의 관계적 능력을 강조한다.

주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구조적인 *관계적* 능력이며, 이는 어떤 존재나 부여받는 특정한 정도의 힘 혹은 권력과 짝을 이룬다. 이는 다른 존재들을 향해 확장하고 다른 존재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들은 중심화된 주체와 ‘그의’ 오래된 지식의 나무 없이 주체성을 구성한다. ... 몸들은 체현되고 속해있으며, 관계적이고 정동적인 힘을 가진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고 다른 속도의 되기가 가능하다.

What constitutes subjectivity is a structural *relational* capacity, coupled with the specific degree of force or power that any one entity is endowed with: their ability to extend towards and in proximity with others. They compose a subjectivity without a centralized subject and ‘his’ ancestral tree of knowledge. ... Bodies are both embedded and embodied, and have relational and affective powers. As such they are capable of different things and different speeds of becoming. (emphasis original) (Braidotti 2019, 42)

‘우리가 휴머니즘을 넘어서고 있고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과정 중에 있음을 강조하는 브라이도티는 그 방식이 “실리콘 밸리적 망상, 더 수행적이고 향상된 범인류 구성에 도움이 되는 동질적 혹은 선형적 방식 (Silicon Valley delusion, that this is a homogeneous or linear manner conducive to the composition of a more performative and enhanced

pan-humanity)"(44)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대신 “존재론적 관계성으로 결속된, 체현되고 속해있고 횡단적인 자아들(the embodied, embedded and transversal selves that we are, bonded by ontological relationality)"(44-45)을 강조한다. 즉, 우리는 물질적 세계에 깊이 잠겨있기 때문에 체현되고 속해있으며, 서로 연결되어있으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횡단적이고, 그럼에도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간과 인간 아닌 세계에 구조적으로 관련되어있다고 강조한다. 브라이도티는 “정말로 핵심적 용어는 체현되고 속해있고 비초월적이고 다중방향적이고 다중규모로 작동하는 관계성(The key term is indeed relationality, operating in an embedded and embodied and grounded, multi-directional and multi-scalar manner)(45)라고 반복함으로써, 다시 한 번 포스트휴먼 주체에 핵심적 속성과 능력이 관계성임을 강조한다.

포스트휴먼 주체에서 강조되는 관계적 능력은 우리 인간 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인간의 몸을 비롯한 모든 생명 물질(物質)은 유기적 생명의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능적이고 자기조직적이며 관계적이다.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명(Life)’을 인간종이 배타적으로 소유한 것 혹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코드화하지 않고 상호작용적인 과정, 결말이 열린 과정으로 제시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인간종에게 할당된 생명인 비오스(bios)와 조에(zoe)라고 알려진 더 넓은 범위의 비인간 생명 사이의 경계는 치명적으로 흔들린다. 브라이도티는 생명 자체의 역동적이고 자기조직적인 조에 개념을 기존에 분리되어있던 종과 범주와 영역을 재연결하는 횡단적 힘으로 만들어 자신의 조에중심 평등주의 개념을 포스트인간종 중심주의적 선회의 핵심이 되게 한다.

브라이도티가 강조하듯이, 일단 인간종 중심성이 도전을 받으면, 인간과 인간의 타자들 사이의 여러 경계선은 눈사태처럼 무너져 내리면서 뜻밖의 관점이 열린다. 이러한 뜻밖의 관점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다. 물론, 생명 물질이 가진 정보적 힘을 뒤쫓아가며 경제적으로 투자하는 신자유주의 시장 세력과 생명 자체를 사업과 영리를 위한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선진

자본주의가 새로운 주체 형성을 실험할 수 있는 포스트휴먼적 잠재력을 이윤 원리와 소유적 개인주의 개념에 재부착시켜 왜곡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두고 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비인간들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포스트휴먼 조건이 야기하는 곤경에 눈감지 않고 또 그 곤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의 생산적 측면을 강조하고 주체성의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형시키기 위한 관점이 어떻게 새롭게 열릴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확인해보는 공정의 정치학이 중요하다고 브라이도티는 강조한다.

IV. 동물-되기, 지구-되기, 기계-되기로서의 포스트휴먼

브라이도티는 휴머니즘을 넘어서고 인간중중심주의를 극복하는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실험적 시도들에 ‘동물-되기로서의 포스트휴먼(The posthuman as becoming-animal),’ ‘지구-되기로서의 포스트휴먼(The posthuman as becoming-earth),’ ‘기계-되기로서의 포스트휴먼(The posthuman as becoming-machine)’ 등의 이름을 붙인다. 물론 이러한 타자-되기 실험들은 더 많은 다양한 포스트휴먼 주체 되기 실험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동물,’ ‘지구,’ ‘기계’ 등이 그동안 ‘인간’ 개념을 세우는 핵심적 타자-향으로 기능해왔음을 고려하면, 브라이도티가 개진하는 동물-되기로서의 포스트휴먼, 지구-되기로서의 포스트휴먼, 기계-되기로서의 포스트휴먼이 어떤 양상으로 형상화되는지, 어떤 효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녀가 수립하고자 하는 새로운 포스트휴먼 주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브라이도티가 『포스트휴먼』의 「포스트-인간중중심주의: 종 너머 생명」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자세하게 개진하는 포스트휴먼 되기 중 ‘동물-되기로서의 포스트휴먼’ 개념은 인간중중심주의를 벗어나 종을 횡단하는 연대를 인정하려는 시도이다. 종을 횡단하는 연대는 우리 모두가 자연의 일부이며

우리 모두가 체현되고 환경에 속한 존재로서 다른 종과 공생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사실 인간에게 동물은 역사적으로 필요하고 익숙하고 소중한 타자였지만 동물을 ‘우리가 텔레비전을 같이 보는 동물,’ ‘우리가 먹는 동물,’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동물’로 나누었던 루이스 보르헤스(Louis Gorges)의 흥미로운 분류법이 드러내고 있듯이(Braidotti 2013, 68 재인용) 인간이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동안 철저히 인간중심적이었다. 그래서 동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에게는 익숙하고 필요하고 소중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그들에게는 늘 위협으로 가득하고 모순적이며 문제적인 관계가 된다. 재현의 영역에서도 동물은 늘 인간을 위해 존재해왔다. 우화에서는 인간을 위해 미덕과 도덕적 문법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대상으로 존재했고, 해러웨이가 동반종이라고 부르는 인간에게 친밀한 동물은 늘 무조적 인간에게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존재로 담론화되었으며, 동물의 몸은 그 몸에 자유롭게 접근해 사용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중심적 인식의 틀에서 늘 노동력이었고 늘 먹거리였다.

이러한 인간중심적 관계와 인식의 틀이 현시대에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유는 동물과 인간의 생명과 생명물질을 똑같이 상품으로 순환시키는 선진자본주의 시장과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시키는 실험실 안에 동물들이 놓여있는 위태로운 위치 때문이다. 다나 해러웨이가 『검손한 목격자@제2의_천년. 여성인간©_앙코마우스™_를만나다(*Modest_Witness@Second_Millennium, FemaleMan©_Meets_OncoMouse™: Feminism and Technoscience*)』(1997)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잘 다루고 있듯이 우리 시대의 동물의 몸과 생명물질은 일반 대중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실험실에서 생명공학의 기술이 실험되고 적용되고 착취되는 재료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순환되는 특허받은 상품이 되고 있다. 이미 역사적 사실이 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복제양 돌리, 인간의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앙코마우스 등은 새로운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포스트휴먼 조건의 아이콘이다. 해러웨이가 앙코마우스의 혼종적 형상화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웅변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연구소와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창조되어 스스로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포유류를 구하는 포유류, 유방암 치료법을 발견하여 많은 여성의 삶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동물, 복제양 돌리와 마찬가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만들어져서 자연의 질서를 뒤흔드는 존재, 형질전환된 양코마우스는 포스트휴먼이라는 용어의 모든 가능한 의미에서 포스트휴먼적임을 해러웨이는 잘 보여준다.

브라이도티는 이렇게 우리 시대의 인간과 동물 상호작용에 작동하는 잔인한 모순과 권력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이러한 포스트휴먼 조건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새롭게 전망할 윤리적 필요성과 가능성을 요청한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포스트휴먼적 인간-동물 관계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상호관계가 인간과 동물 각각의 정체성을 구성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그 상호관계는 인간과 동물 각각의 본성을 혼종화하고 변화시키면서 인간과 동물이 상호작용하는 중간지대를 전면에 드러내는 변형과 공생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상호관계는 보편적 가치나 자질에 대해 미리 도덕적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열린 실험으로 탐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물-되기로서의 포스트휴먼 주체성은 지속적으로 실험되어야 하는 열린 기획이다.

포스트휴먼 조건에서 포스트-인간중중심주의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철저하게 재구성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한다면, 포스트휴먼의 지구-되기 차원은 생태와 기후 변화 문제를 강조하면서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전면으로 가져온다. 인간이 지구와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주체성을 갱신하라고 요청되는 이유는 우리가 소위 인류세 시대에 들어섰다는 자각 때문이다. 인간이 지구에서 단지 하나의 생물학적 종으로 존재하기를 넘어서서 지구 전체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질학적 세력이 되었다는 자각이다. 이러한 자각은 보통 환경 위기, 기후 변화, 생태적 지속가능성 같은 부정적인 용어로 표현되지만, 브라이도티는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던 우리의 복합적 거주지인 지구와의 관계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의 관계를 재구성할 대안을 풍부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차원도 있다고 제안한다.

그렇다면 지구를 중심에 두는 주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일단 지구를 중심에 두는 사유로 선회하면, 계몽주의 모델에 담긴 고전적 휴머니즘과 인간중중심주의의 한계가 드러난다. 인간 체제의 억압과 불평등을 극복하려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포스트식민주의 등이 논하는 사회구성주의적 분석들은 전 지구적 기후 변화와 인간 멸종 같은 지구중심적 선회가 생성하는 공간적, 시간적 규모의 변화를 다루기에는 충분히 보이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지구행성을 기술적으로 매개된 자연-문화 연속체로 보면 자연주의적 토대에 기반한 주체성 이론도 생태의 차원을 부인하는 사회구성적이고 이분법적인 주체 이론도 우리가 기댈 수 없게 된다. 특히 최근에 지주 등장하는 멸종과 대재앙이 임박했다는 인식에 기반한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부정적인 유대는 현재의 성차화, 인종화, 자연화의 축들과 생명공학적으로 매개된 정치경제의 새로운 형태들을 통해 작동되는 권력 차이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부족하다. 브라이도티는 생물학적 행위자에서 지질학적 행위자로 변화된 인간의 새로운 위치가 요구하는 주체성과 공동체의 재구성은 정말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체성 개념을 요구하는 실험이라고, 그래서 지구-되기로서의 포스트휴먼은 동물-되기보다 더 실험적 사유와 상상력이 요구되는 실험이고 주체에 대한 지배적 견해에 비판적 거리를 두는 낯설게하기 전략이 정말로 필요한 과정이라고 브라이도티는 강조한다.

포스트휴먼의 또 다른 축은 기계-되기로서의 포스트휴먼으로서, 이 실험 과정은 인간과 기계를 나누는 분할성에 틈을 내어 생명공학기술로 매개된 관계를 주체 구성에 근본적인 것으로 도입한다. 사실 포스트-인간중중심주의가 일으키는 곤경의 중심에 기술의 문제가 있음을 브라이도티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 우리 시대의 인간과 기술적 타자 사이에는 전례가 없는 친밀성과 침투성이 생성되고 있고, 그래서 유기체/비유기체, 태어난 것/제조된 것, 살/금속, 전자회로/유기적 신경체계 같은 기존의 존재론적 범주나 구조적 차이의 분할선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러웨이가 20세기 후반에 「사이보그 선언문」에서 그토록 충격적으로 효과적으로 개진했던 ‘사이보그’

는 이제 풍부한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담고 사회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배적인 사회적, 문화적 형성물이다. 이러한 포스트휴먼 상황에 기대어 브라이도티는 기술적 매개가 포스트휴먼 주체성이라는 새로운 전망에 정말로 중요하며 그것이 새로운 윤리적 주장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인간과 기술의 결합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주체를 전망하면서 브라이도티는 이 과정을 기계-되기라고 명명한다. 이때의 기계는 힘과 에너지를 포착하고 상호관계와 다양한 접속과 배치를 촉진하는 엔진이며 장치이며, 이러한 의미의 기계는 은유이면서 실재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기계-되기 실천을 가능하게 한 것은 유전공학과 정보기술의 영향이다. 물질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변화되면서 생명공학기술로 매개된 타자를 생기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정한 의미로 이해된 ‘기계-되기’는 주체의 관계적 힘들을 나타내는데, 이로써 주체는 더 이상 이원론적 틀로 구성되지 않고 다수의 타자와 중요한 유대를 맺고 기술로 매개된 지구적 환경과 융합하는 주체가 된다.

문제는 브라이도티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물질에 대한 과학적 재정의가 차이의 자리를 이분법에서 리즘적으로 바꾸고 성/젠더, 자연/문화의 이분법적 차이들을 흐리게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기존의 권력 차이를 해결하거나 개선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때로는 그러한 변화가 여러 방식으로 권력 차이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도티는 우리 인간이 동물과 맺고 있는 새로운 근접성, 생명의 지구행성적 차원, 고도의 기술적 매개 등 현 시대에 필요한 포스트휴먼 주체를 구성하는 집단적 기획에서 정치적 문제와 권력 차이의 문제를 제기하는 출발점이 바로 주체성에 대한 핵심적 질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한다.

V. 결론: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먼 주체성

로지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 조건과 포스트휴먼 주체성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먼 지식』 두 책을 통해 포스트휴먼
 환경이 인간의 위상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더 열심히 생각하도록 강요한다고,
 그에 따라 주체성을 다시 설정하고 우리 시대의 복잡성에 맞는 윤리적
 관계와 규범과 가치들의 형식을 발명할 필요를 요청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한
 다. 우리가 포스트휴먼 조건이라는 이 특정한 21세기에 적합한 주체가
 되려면 현실과 곤경과 기회 모두에서 눈을 돌리지 말고 우리 자신의 역사적
 조건 안에 우리 자신의 주체성을 새롭게 새겨 넣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인간 이후의 인간’이라는 모순적이고 자기충돌적으로 보이
 는 복잡한 전망을 기획하는 것일지라도 그러한 도전을 회피하거나 과거의
 휴머니즘적 가치로 향수적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주체 개념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포스트휴먼 주체성은 늘 과정 중인 개념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윤리적 의무라고 브라이도티는 강조한다.

이 글은 권력과 타자의 문제에 민감한 페미니스트 로지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 주체 논의와 그녀의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이 현재 진행
 중인 많은 포스트휴먼 논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머니즘적, 포스트-인간중심적 포스트
 휴먼 주체 전망은 브라이도티의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이 휴머니즘적 인간
 관을 유지하면서 생물학적 인간 조건을 넘어서 ‘탈-인간’을 꿈꾸는 트랜스휴
 머니즘이나 기술 발전에서 유도피아적 희망을 찾아내면서 현실에서 발생하
 는 권력 차이와 불평등의 문제를 간과하는 포스트휴먼 사유들에 대해 단호한
 비판적 거리를 두게 하는 핵심 개념이다. 페미니스트인 브라이도티에게
 주체성이란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매개된 과정이면서 권리 부여와 권력의
 문제이고,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주체들의 출현은 자아의 심층 구조를
 동원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자아 외적인 집단적 기획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브라이도티는 새로운 기술적 타자들이 만들어지는 포스트휴먼 조건
 에 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우리 주체성의 심층 구조에 있는 바일자의

원리를 견뎌내면서 동시에 “유물론적이고 생기적이며 체현되고 속해있는” 이 주체가 위치의 정치학에 따라 어딘가에 견고하게 위치해 있는 “다면적이고 관계적인” 주체임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포스트휴먼 주체는 브라이도티 스스로 인정하듯 스피노자, 들뢰즈와 과타리의 렌즈를 통해 유목적 존재론 안에서 개념화된 주체이면서, 페미니즘과 포스트식민 이론들이 더해진 주체이고, 나아가 포스트휴먼 사유 자체를 특징짓는 관계적 생성성과 본질적 복잡성에 의해 현실화된 주체이지만, 이러한 포스트휴먼 주체에 “중심화된 주체와 ‘그의(his)’ 오래된 지식의 나무 없이 주체성”(Braidotti 2019, 42)을 전망하는 브라이도티의 페미니즘적 관점이 기여한 바는 분명해 보인다.

참고문헌

- 강원대학교KNU뉴스. 2017.11.21.일자. “인문과학연구소, 『힐링 인문학 모듬 프로그램』 개최”. <http://www.kangwon.ac.kr/www/selectBbsNttView.do?key=99&bbsNo=21&nttNo=5337>. 2019.10.01. 접속
- 다나 해러웨이(1997). 『겸손한_목격자@제2의_천년.여성인간©_앙코마우스™를_만나다』. 민경숙 옮김. 갈무리. 2007
- (1991). 「사이보그 선언문: 20세기말의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주의적-페미니즘」.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자연의 재발명』. 민경숙 옮김. 동문선. 2002. 265-325쪽.
- 로지 브라이도티 (1999). 『유목적 주체: 우리시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체현과 성차의 문제』. 박미선 옮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4
- (2013). 『포스트휴먼』. 이경란 옮김. 아카넷. 2015.
- 몸문화연구소(2017). 『지구에는 포스트휴먼이 산다』. 펠로소픽.
- 박유신, 조미라(2017). 「미래사회를 위한 포스트휴먼 교육」. 『미술교육논총』 31(2). 179-216쪽.
- 신상규(2014).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트랜스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아카넷.
- 이중관(2017). 『포스트휴먼이 온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에 대한 철학적 성찰』. 사월의 책.
- 이찬웅(2016). 「들뢰즈에서 창조의 세 전선—철학, 과학, 예술」. 『철학』 127집. 103-126쪽.
- 장윤재(2017). 『포스트휴먼 신학』. 신앙과지성사.
- Butler, Judith & Braidotti, Rosi (1994). “Interview. Feminism by any other name.” *Differences: A Journal of Feminist Cultural Studies* 6(2+3), 28-61.
- Braidotti, Rosi (1994). *Nomadic Subjects: Embodiment and Sexual Difference in Contemporary Feminist Theory*. Cambridge: Columbia University Press,
- (2002). *Metamorphoses. Towards a Materialist Theory of Becoming*. Cambridge: Polity Press,
- (2006). *Transpositions: On Nomadic Ethics*. Cambridge: Polity Press.
- (2013). *The Posthuman*. Cambridge: Polity Press.
- (2019). *Posthuman Knowledge*. Cambridge: Polity Press.
- Haraway, Donna (1991). “A Cyborg Manifesto: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Feminism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Simians, Cyborgs,*

-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New York: Routledge. 149-181.
- (1997). *Modest_Witness@Second_Millennium.FemaleMan©_Meets_Onco Mouse™: Feminism and Technoscienc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2003). *The Companion Species Manifesto: Dogs, People, and Significant Otherness*. Prickly Paradigm Press.
- Hayles, Katherine (1999). *How We Became Posthuman: Virtual Bodies in Cybernetics, Literature, and Informa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 Hassan, Ihab (1961). *Radical Innocence: Studies in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77). "Prometheus as performer: Towards a Posthumanist Culture?." *The Georgia Review* 31(4). 830-850.
- (1987). *The Postmodern Turn: Essays in Postmodern Theory and Cultur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 Quora. "Why do websites need to verify that you're not a robot?" <https://www.quora.com/Why-do-websites-need-to-verify-that-youre-not-a-robot>. Accessed 2019.10.01.

국문초록

주체성은 사회적으로 매개된 과정이며 권리 부여와 권력의 문제이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주체들이 출현한다는 것은 자아의 심층 구조들을 동원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자아 외적인 집단적 기획이다. 로지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머니즘적이고 탈-인간중중심주의적인 포스트휴먼 전망은 포스트 휴먼 주체들이 체현되고 환경에 속한 존재이며, 횡단적이고 관계적이라고, 또 그래야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동시에 포스트휴먼 주체들은 우리가 포스트휴먼적 곤경들과 기회들에 대면해서 과연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에 지속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진행 중인 과정이다. 로지 브라이도티가 2013년에 출판한 『포스트휴먼』과 2019년에 출판한 『포스트휴먼 지식』에서 개진한 포스트휴먼 주체성에 대한 전망과 그녀의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주체성 개념을 형성하는데 그녀의 포스트휴먼 주체 개념이 어떤 중요한 개념적 자원을 제공하는지 평가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주체,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포스트휴먼』, 『포스트휴먼 지식』

Abstract

Rosi Braidotti's Vision of the Posthuman: Towards Posthuman Subjects and Critical Posthumanism

Lee, Kyung-Ran(Ewha Womans University)

Subjectivity is a socially mediated process and a matter of empowerment and power. Therefore, the emergence of new social subjects is a process which involves a collective project external to the self as well as its deep-seated structures. Rosi Braidotti's vision of the posthuman, which is both post-humanistic and post-anthropocentric, makes it clear that posthuman subjects are, and should be, embedded and embodied, transversal and relational. As she insists, posthuman subjectivity is a work-in-process which constantly involves experimentation with what we are capable of becoming in the face of posthuman predicaments as well as opportunities. Rosi Braidotti's vision of posthuman subjects and her critical posthumanism, which she developed in *The Posthuman* in 2013 and *Posthuman Knowledge* in 2019, are important platforms from which workable concepts of posthuman subjectivity worthy of the times might be formulated and developed.

Keywords: Rosi Braidotti, Posthuman Subjects, Critical Posthumanism, *The Posthuman*, *Posthuman Knowledge*

Received : 10 October 2019
Reviewed: 21 October 2019
Accepted : 22 October 2019